

반부패소설고

서정희*, 안승웅**, 전금***

〈목 차〉

1. 들어가며
2. 왜 반부패소설인가?
3. 중국의 부패현상과 반부패소설의 흥기
 - 1) 반복되는 역사 - 부패
 - 2) 주선율로의 편입
4. 반부패소설의 내용
 - 1) 사건중심형 소설 작품과 작가
 - 2) 인물중심형 소설 작품과 작가
5. 나오며

1. 들어가며

중국의 국가주석인 후진타오는 2011년 7월 1일에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있었던 공산당 창당 90주년 공식 기념행사 연설에서, “공산당이 생존하려면 부패를 척결해야”함을 강조하였다.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2012년 3월 초 개막될 양회를 앞두고 허궈창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의 연설문을 공개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²⁾

사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가 아주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 영산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1) 〈胡锦涛：反腐败关系人心向背和党的生死存亡〉, 《中国新闻网》, 2011.07.01. <http://www.chinanews.com/gn/2011/07-01/3150372.shtml>

2) 〈中 공산당, 兩會 앞두고 부정부패 척결 강조〉, 《KBS 뉴스》, 2012.02.20. <http://news.kbs.co.kr>

흔히 접하게 되는 중국관련 소식 중의 하나가 바로 부패와 관련 된 것들이다.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의 해임 사건³⁾과 저장번썬(浙江本色) 지주그룹 대표 우잉(吳英)의 사형 선고를 둘러싼 논란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신문지상을 달군 굵직한 사건들 이면에는 한결 같이 중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의 전자게시판인 BBS(Bulletin Board System)에서는 2010년 중국사회를 규정짓는 10대 키워드로 '부패'를 가장 먼저 꼽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얼파이(官二代)', '푸얼파이(富二代)' 등과 같은 신조어가 중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 보아도 중국사회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 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일부 작가들이 사회의 부패현상을 폭로 비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 바 '반부패소설[反腐小說]'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반부패소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사회에 일기 시작한 반부패 운동과 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에 힘입어 성행하였고 중국문단에서 주목하는 창작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부패 소설 작가들은 엄숙한 태도와 높은 사회적 책임감으로써 권력의 부패 문제를 바라보았고, 현실주의 창작수법을 기본으로 하여 권력의 부패현상을 폭로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부패의 사회적 원인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부패에 대항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부패로 일그러진 사회의 진면목을 실감나게 반영해 내었다. 중국평론계에서는 반부패소설을 두고 "현실 사회의 심층문제를 반영하고 일반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문학을 기다리고 있었던 문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평하면서 '여성작가들의 창작', '인터넷 소설'과 함께 '문단의 두드러지는 세 가지 현상[三高]'이라 부르기도 하였다.⁵⁾

3) 〈실각 보시라이 비리 조사설... 사법 처리냐 조용한 은퇴냐〉, 《경향신문》, 2012.03.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62210105&code=970204

4) 〈사기로 사형선고 중국 여성 갑부, 일단 집행 모면〉, 《경향신문》, 2012.02.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52135585&code=100100

5) 董斌, 《反腐小说的文化意蕴与价值 - 文化视野下法学与文学的交叉研究》(兰

반부패소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정부의 반부패 운동과 궤를 같이 하여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반부패소설은 중국사회에 만연한 부패 현상을 단순히 폭로하고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인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이들의 내면세계까지 그려내고 있어, 중국사회를 보다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연구의 측면 뿐 아니라 중국사회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반부패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는 반부패소설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국!》과 같은 일부 중국문화관련 개론서에서 반부패운동을 언급하면서 반부패소설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绝对权力》이나 《沧浪之水》등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반부패소설 또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반부패소설과 관련된 전문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⁶⁾

이에 본고는 반부패소설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시작하여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주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아울러 창작경향과 이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이는 반부패소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반부패소설이 지니는 문학, 사회학적 가치를 탐색하고 조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작업이 이후 반부패소설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2. 왜 반부패소설인가?

州大学博士学位论文, 2007), 14쪽 참고.

- 6)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반부패소설로는 《绝对权力》(周梅森, 김진아 역, 길산, 2002)과 《沧浪之水》(閻真, 박혜원·공빛내리 역, 비봉출판사, 2003) 등이 있다. 중국에서 출판된 지 1~2년 안에 번역되었고 역자서문이나 후기에 ‘중국의 베스트셀러’, ‘중국인을 이해하는 최상의 텍스트’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학적 가치보다 상품적 가치에 치중한 기획출판으로 보인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index.do)에 의하면 국내의 반부패소설 관련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현재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소설이란 중국 당대 문학사에 나타난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문학현상이다. 반부패 소설이라는 용어 또한 199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것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소설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반부패소설이 탄생하기 이전에 관료사회의 추악함과 타락을 묘사한 ‘官場소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관장소설이란 관료사회의 권력투쟁 과정과 이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부패현상을 고발하는 것을 주요 묘사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말의 견책소설과 맞닿아 있다. 반부패 소설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관장소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혹자는 반부패소설을 관장소설의 상위개념으로 보려하고 혹자는 반대로 반부패소설을 관장소설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⁷⁾

반부패소설과 관장소설은 작품의 창작 題材를 가지고 命名한 문학적 분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반부패소설과 관장소설은 동일한 소설을 두고 어느 측면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대다수 관장소설은 그 소설의 속성상 관료의 부패한 현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부패소설과 내용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모든 반부패소설은 부패의 원인을 밝히고 이것을 폭로하려면 官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모두 관장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부패소설이나 관장소설을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그런데 국외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장소설과 반부패 소설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혼란과 혼용은 비교적 단순한 이유 때문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호응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호응할 경우 기존의 관장소설과 구별하여 반부패소설이라는 명칭을 따로 사용하려 하고, 반대로 정부의 시책과 거리를 두고 문학자

7) 반부패소설을 관장소설의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는 대표적 논문으로는 彭程의 《2002年的反腐小说：流行热潮的持续涌动》이 있으며, 반부패소설을 관장소설의 한 유형으로 보려는 논문으로는 赵佃强的 《世纪之交“官场小说”热潮的历史文化缘由》가 있다.

체에 집중할 경우에는 관장소설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天网》, 《抉择》 등을 발표한 대표적 반부패소설 작가인 张平 조차도 자신이 반부패 소설작가로 불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나를 반부패소설 작가로 규정하는 것에 아주 반대한다. 아주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작품이 현실의 어두운 면을 언급하고 과거의 올바르게 못했던 분위기를 언급하기만 하면 그는 곧 반부패 소설작가 군으로 분류되어 버린다. 이는 사실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너무나 편협한 것이다.⁸⁾

원래 창작의 자유를 중시하고 작품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작가의 말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소설 창작을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반부패 운동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거리두기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부패소설로 알려진 《国画》, 《沧浪之水》 등을 연구한 일부 논문들은 관장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써 반부패소설은 정부 주도의 반부패운동에 호응하려는 신조어로서, 아직까지 학계의 공식용어로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반부패소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반부패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관장소설의 한 흐름으로 볼 것인가?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부패소설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달라진 사회 환경과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한다면 반부패소설이라 부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의 관장소설이 묘사했던 관료사회와는 질적으로 변화된 관료사회 조직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부패 양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장소설과 차별화되는 반부패소설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장소설과 반부패소설은 창작소재, 스토

8) 张平：其实我非常不赞同把我定为“反腐”作家。很奇怪的是，只要谁的作品涉及现实生活中的负面，涉及过去所说的“不正之风”就被归入反腐写作的类型中，其实这是不对的，这种划分太过于狭隘。〈张平：别把我当成“反腐作家”〉，《北京青年报》2004.03.08. 《腾讯网》 <http://news.qq.com>

리 전개방식 그리고 제시하는 주제 등에 있어 서로 중첩 교차되거나 혹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명칭으로 보아 관장소설이 관료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 군상들이 벌이는 타락, 부정부패를 사실적으로 그린 점에 맞추어 명명한 것이라면, 반부패소설은 부패를 반대한다는 행위 즉 부패를 고발하고 척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구현한다는 작가의 의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명명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장소설이 관료사회라는 공간적 의미를 강조한다면, 반부패소설은 관료사회에만 그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에서 권력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부패 현상을 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문인, 지식인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반부패 소설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고 있듯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이다. 비록 헌법에서 다당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공산당의 집권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공산당이 권력을 잡은 후 권력을 유지하는 한 방편으로서 지식인을 이용하고 통제하였다. 1942년 연안 정풍운동에서 시작된 문인에 대한 통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화전국문학예술계연합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진 문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운동 또한 문인, 지식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⁹⁾ 이로써 문인들은 국가 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할 뿐 현실의 어두운 면이나 공산정부의 실정을 감히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雙百方針에 이은 反右派 투쟁은 지식인의 뇌리에 국가정책에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각인시켜 놓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문인과 지식인은 '아홉 번째 냄새나는 놈(臭老九)'으로 전락하여 박해를 받았다. 비록 개혁개방 이후 문인들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문단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지만, 공산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문인 지식인을 통제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다. 문인들 또한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다.

9) 1950~1951년의 영화 《武訓傳》에 대한 비판, 1954~1955년의 俞平伯의 《紅樓夢研究》에 대한 비판, 1955년의 '胡風 집단 비판' 등이 있다.

바로 이러한 중국적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국정부의 특별한 용인이 없이 고위 관료가 개입된 부패현상을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관장소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원칙적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관장의 부패현상을 폭로, 비판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련의 소설들은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반부패 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는 반부패소설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중국정부 주도의 반부패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반부패 소설은 광의 개념으로서 20세기 90년대 말 중국의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부패문제와 관장을 투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소설 창작을 포괄한다. 단지 반부패 제재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 창작이 아니다. …… 결론적으로 반부패소설의 창작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고, 작가의 사회책임감과 작품의 문화비판정신을 발양시키는 특징을 잘 드러내었다.¹⁰⁾

이처럼 달라진 사회 환경과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과 지식인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반부패소설이라는 용어가 관장소설보다 더욱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반부패소설을 ‘관료사회에만 그치지 않고 권력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광범위한 부패 현상을 묘사하여 당대 중국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일련의 소설작품들’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중국사회와 당대 문단의 문학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의 부패현상과 반부패소설의 흥기

1) 반복되는 역사 - 부패

부패란 생물의 시체나 식품 등의 유기물이 부패균의 작용으로 분해되

10) 董斌, 《反腐小说的文化意蕴与价值 - 文化视野下法学与文学的交叉研究》, (兰州大学博士学位论文, 2007), 13쪽.

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패는 발효와 달리 악취를 풍기며 인간에 유해한 유독성분을 생성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찍이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전용되고 있다.¹¹⁾

개인이나 집단의 부패에 대한 정의는 부패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란 공직자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즉 공공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란 사회의 도덕, 특히 공직자의 도덕적 타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란 각계각층의 관료들이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법률과 도덕에 위반되는 유해하거나 불법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¹²⁾ 이밖에 경제학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부패에 대하여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모두가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사회의 부패를 다루고 있는 국내 연구는 양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연구주제 방면에서 보면 부패 양상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기하는 것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부패 관련 연구는 대부분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제도 사이에서 권력이 오용되고 남용될 여지가 많아 부패현상이 만연해졌다고 보고 있다. 즉, 당대 중국의 부패현상을 사회의 전환기 혹은 과도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현상을 사회의 전환기 혹은 과도기의 산물로 본다면, 부패 문제는 당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잠재규칙》에서 5천 년 중국의 역사를 부패의 역사로 재해석하고 있는 우쓰(吳思)는 아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중국역사상 황제 통치시대에는 관료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회집단은 힘을 독점하고 법률을 장악하였으며 거대한 인력과 자금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그 사회의 운명에 거의 결정적

11) 《새우리말 큰사전》(서울: 삼성출판사, 1987) 참고.

12) 黄宝玖, 《新中国反腐倡廉建设历程》(北京:世界知识出版社, 2011), 45쪽.

역할을 하였다.¹³⁾

그리고 우쓰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중국 봉건 왕조하에 봉건관료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백성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화되면 왕조는 종말에 이르게 됨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¹⁴⁾ 결국 과거 중국의 역사는 ‘새로운 왕조의 성립 → 융성 → 부패 → 멸망 → 새로운 왕조 성립’이라는 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왕조의 흥망성쇠의 관건은 관료의 부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⁵⁾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은 과도기 혹은 전환기로서의 현재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100년 전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아편전쟁이후 그러했듯이 개혁개방 이후 서구의 문물과 자본이 물밀 듯 들어왔다. 그리고 이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혼란을 수습해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패하는 현상 또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11년 신해혁명 전야, 봉건왕조의 관료는 부패하여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지켜내지 못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한 정국을 틈타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었다. 1909년,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湖南의 한 관료는 백성을 구휼할 정책을 펴는 대신 영미일 상인과 결탁하여 쌀을 매점매석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1910년, 민족자본가와 애국시민들이 천신만고 끝에 제국주의국가로부터 환수 받은 철도운영권을 국유화라는 명목으로 왕족 관료들이 사유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관료들의 부패행위는 식량폭동과 철도 국유화 반대시위를 불러 일으켜 1911년 청조의 몰락을 재촉하였다.¹⁶⁾

13) 우쓰, 《잠재규칙 : 5천 년 중국, 숨겨진 부패의 역사》(서울: 황매, 2005), 19쪽.

14) 위의 책, 110쪽 참고.

15) 기자 출신 우쓰가 이 책을 쓴 것 또한 중국정부 주도의 반부패 운동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관료의 부패를 집중적으로 이야기 한 뒤 우쓰는 (관료의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진한 시대부터 명청 시대까지 모든 왕조가 되풀이 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라 밝히고 있다. 위의 책, 357쪽.

16) 姫田光義·阿部治平, 《中國近現代史》(서울: 일월서각, 1984), 115~155쪽 참고.

관료가 관권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패는 약 백년이 지난 뒤 지금에도 진행되고 있다. 즉, 봉건왕조의 부패관료가 자본과 결합하여 부패를 심화시켰듯이 봉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산당 관료¹⁷⁾ 또한 자본과 결합하여 부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인 80년대에는 국유재산의 소유를 다원화하고 복제제도¹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성행하였다. 90년대 이후에는 금융, 증권, 건축, 부동산 도시재개발, 농촌경지 정리 등 모든 경제영역에서 관료의 부패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수익성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서 관료들의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다.¹⁹⁾

이처럼 부패의 역사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의 부패현상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패문제의 해결을 국가와 당의 사활을 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부패현상을 인정하고 공개하여 이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패문제로 야기된 사회의 각종 모순을 해결할 때까지 대다수 국민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문제는 공산당의 자정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 또한 당의 노선을 이전처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산당에게는 관료의 부패를 보다 객관화하고 과감

17) 중국공산당은 반제반봉건의 기치 아래 혁명에 성공하여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공산당의 반제반봉건 운동에서 반제는 성공한 듯하나 반봉건은 오히려 실패한 것 같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1950년대 초기에 있었던 삼반, 오반 운동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黄宝玖, 《新中国反腐倡廉建设历程》(北京:世界知识出版社, 2011), 8~15쪽 참고.

18) 개혁개방 초기 각 방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신구체제가 병존하고 있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격 복제제, 이윤 복제제, 환율 복제제 등이 있다. 왕중화, 《현대중국의 부패와 반부패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년), 37쪽 참고.

19)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정부기구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제3산업’을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그래서 정부가 회사를 설립하고, 경찰이 회사를 설립하고, 학교가 회사를 설립하고, 군대도 회사를 설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쑨리핑, 《단절》(부산: 산지니, 2007), 227쪽.

하게 지적해줄 동반자와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주선율로의 편입

통계자료에 의하면 90년대 말에서 시작하여 2010년까지 겨우 10 여년의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 출판된 반부패소설류의 작품은 1000 여편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 온라인상에서 베스트셀러통계에 오른 반부패소설이 488편이나 된다고 한다.²⁰⁾ 그렇다면 이처럼 반부패소설이 흥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에서 반부패소설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처음 쓴 董斌은 그의 논문에서 사회, 문화심리, 문학의 측면으로 나누어 반부패소설이 흥성한 이유를 고찰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원인으로 개혁개방 이래 부패가 심화된 사회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부패한 사회현실에 대한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부패해결에 대한 관심이 반부패 소설이 흥성하게 된 첫째 이유인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 심리적 각도에서 권력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및 엿보기 심리, 그리고 영웅숭배사상과 사필귀정의 바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문학적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문학이 다양화되고 대중화되는 가운데 너무 통속화되자 현실주의 계열의 문학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²¹⁾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할 부분은 위의 절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반부패소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부의 반부패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반부패소설의 흥성 또한 중국정부의 역할, 중국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부패소설은 원래 권력의 부패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력의 견제를 받았었다. 출판 금지는 물론이고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 부패의 척결 여부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됨을 감지한 중국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반부패 소설 창작은 새

20) 邵筐, 〈反腐风潮催生热门“官场小说”〉, 《检察日报》, 2010.02.26.

21) 董斌, 《反腐小说的文化意蕴与价值 - 文化视野下法学与文学的交叉研究》, (兰州大学博士学位论文, 2007), 19~29쪽 참고.

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부패 소설은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이 중 1997년에 출판된 <抉擇>의 경우 2000년 茅盾문학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 <生死抉擇>라는 영화로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즉, 권력을 견제하려했던 반부패 소설은 오히려 권력의 비호를 받고 국가적 지원 속에서 주선율 문화에 편입된 것이다.

주선율이란 통치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영화나 기타 문예작품을 가리키는 말로서, 통상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이나 당의 통치노선에 의거하여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정신을 발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선율의 제작과 보급에는 통상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 뒤 따른다. 반부패소설의 이러한 주선율문화와의 결합은 작가의 창작과 출판시장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반부패소설의 흥성으로 이어졌다.

우선, 이전에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정부나 당과 관련이 있는 일을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소설의 제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현 정부에서 성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官場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하급 관료에서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관련된 인물이면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사회가 지닌 모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권력의 부패 문제를 다룰 정도로 소설 창작상의 자유와 공간이 확대된 것이다. 이것의 결과,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들은 자연스럽게 반부패소설 창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점차 더 과감하게 부패의 핵심에 다가서게 되어 현실성과 작품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해 내었다. 이로써 반부패운동 과정을 선양하는 다소 도식적인 작품들 뿐 아니라 <沧浪之水>, <国画>처럼 官場의 부패 자체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작품들도 등장하게 되어 반부패소설의 문학성과 문학적 위상이 제고 되었다.

두 번째 주선율 문화와 결합함으로써 반부패소설은 독자대중을 확보하고 출판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90년대 이래 대중문화의 발달 속에서 문학 또한 다양화하였는데 대부분 통속소설로 집중되었다. 국가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실주의 전통을 고수하던 작가들은 선봉소설, 신역사소설 류의 창작을 시도했으나 현실과

거리가 있었기에 독자의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출판사의 독립채산제가 자리 잡게 되자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주의 계열의 작품은 그 입지가 더욱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반부패소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주선유희화하자 현실주의 계열의 문학을 추구하던 작가들의 입지는 넓어졌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더욱 많은 작가들이 반부패소설의 창작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부패소설의 창작이 흥성하게 된 것은 사회, 문화, 문학적 측면에서 원인이 있지만, 부패현상이 국가와 당의 존망과 직결됨을 감지한 중국정부가 반부패소설을 주선유희 문화로 끌어들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부패소설의 주선유희화는 반부패 투쟁이 지나는 정당성으로 인해 정부, 문인, 일반 대중 모두가 환영하는 혼하지 않는 문학현상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반부패소설의 흥성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4. 반부패소설의 내용

최근 10여 년 동안 수많은 반부패소설이 창작되었다. 당연히 이 중에는 우수한 작품도 있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도 적지 않다. 출판업계의 상업적 의도에 충실한 조잡한 흥미 위주의 폭로성 작품도 적지 않으며, 시대 의식과 사명감으로 사회현실을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 또한 적지 않다.

작품의 문학적 가치와 사회영향력 방면에서 보았을 때 张平, 陆天明, 周梅森, 王跃文, 阎真 등이 성취가 높은 작가들이다.²²⁾ 이들 작가들의 작

22) 이들 5명은 10대 반부패소설 작가군에 속하는 작가들이다. 河南의 《纪检与监察》잡지사에서 작가와 평론가를 초청하여 작품의 문학적,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10대 반부패 소설을 선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陆天明 《大雪无痕》 2. 张平 《抉择》 3. 周梅森 《中国制造》 4. 王跃文 《国画》 5. 阎真 《沧浪之水》 6. 田東照의 《跑官》 7. 汪宛夫的 《机关滋味》 8. 晋原平 《权力场》 9. 张成功 《黑洞》 10. 曹征路 《贪污指南》. 〈河南《纪检与监察》杂志评出中国十大经典反腐小说〉, 《秦风》 <http://www.qinfeng.gov.cn/Html/2008-11-7/090111.Html>

품들은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로 개편되어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작가의 작품을 반부패 소설의 대표작으로 삼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소설을 사건중심형 소설과 인물중심형 소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³⁾

1) 사건중심형 소설 작품과 작가

사건중심형 소설이란 부패사건을 중심으로 반부패 투쟁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소설을 가리킨다. 중국정부 주도의 반부패 운동에 호응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张平, 陆天明, 周梅森이 이러한 류의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반부패소설 창작 중에서 张平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 작가이다. 张平의 창작은 대학시절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찍이 《祭妻》, 《公判》 같은 하층 시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묘사한 중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90년대 이후 张平은 필봉을 사회문제로 돌려 《法撼汾西》(1991), 《天网》(1993) 을 차례로 발표함으로써 반부패 소설 창작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 두 편은 모두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하였는데 특히 《天网》의 경우 출판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다. 《天网》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새로 부임한 현위원회 서기 刘郁瑞는 우연히 30년간의 법정다툼으로 가산을 탕진한 농민 李荣才를 만난다. 刘郁瑞는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사회 각 방면의 방해세력을 이겨내고 마침내 李荣才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한다. 동시에 인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한 패거리들에게 철저한 제재를 가한다. 소설은 실제적 사건을 부각하였고 직권을 남용한 이들의 이권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몇몇 관리들이 연명으로 그를 법정에 고소하였다. 법정다툼 기간에 张平은 2000여 통에 달하하는 지지 서신을 받았고, 일부 농민들은 산서 벽지에서 북경으로 와서 그를 성원하였으며, 일부 농민들은

23) 천 여 편에 이르는 반부패소설을 모두 읽고 작품의 경향을 귀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담보하고 있고 이른바 10대 반부패소설 작가 5명의 대표작 《天网》, 《抉择》, 《苍天在上》, 《大雪无痕》, 《中国制造》, 《绝对权力》, 《国画》, 《沧浪之水》 등의 8 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돈을 모아서 소송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10년에 이르는 법정 다툼을 결국 张平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²⁴⁾

《天网》은 张平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창작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한편으로는 법정 소송을 하면서 또 한 편으로 장편소설 《抉择》을 구상하였다. 1997년 《抉择》이 《啄木鸟》에 연재되었고 1997년 8월에 群众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40만자에 이르는 《抉择》은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직권을 이용하여 국유자산을 탈취한 부패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파산 직전의 중앙방직 그룹 직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공장장을 지낸 바 있었던 시장 李高成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뜻밖에도 그가 선발한 회사의 지도급 인사,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와 존경하던 직상 상사가 부패에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정과 법, 사랑과 미움이라는 생사를 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1988년 12월 중국의 100 곳이 넘는 유선방송사는 이를 드라마로 개편하여 방영하였고, 2000년에는 영화 《生死抉择》로 만들어져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抉择》은 제 4기 啄木鸟 문학상 1등상을 비롯하여 전국 公安题材 문학류 작품 1등상, 제 5차 茅盾문학상, 베스트셀러 상 등과 같은 각종 상을 휩쓸었다. 뿐만 아니라 국경절 50주년 행사에 헌정되는 10편의 장편소설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건국 이래 읽어야 할 장편 소설 500편에 들어가게 되었다.²⁵⁾ 《抉择》의 이러한 커다란 성공은 반부패소설의 신속한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陆天明 역시 ‘반부패소설’의 대표작가로 손꼽을 수 있다. 그의 《苍天在上》, 《大雪无痕》 등은 대표적인 반부패 소설로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중앙 방송국을 통해 방송 되었고 각종 상을 휩쓸기도 하였다. 陆天明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라 중앙 방송국 드라마부 전임 시나리오 작가로 반부패 소설 외에 《木凸》, 《泥日》 등과 같은 순문학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²⁶⁾

24) 卜昌伟, 〈张平: 副省长的作家生涯〉, 《京华时报》, 2008.03.15.

25) 艾自由, 〈集体腐败和艰难抉择——评张平的茅盾文学奖获奖作品《抉择》〉, 《凤凰网读书》, 2010.09.06.

26) 〈对话陆天明: 我写反腐小说〉, 《人文网》

<http://www.people.com.cn/GB/wenju/66/134/20020717/777892.html>

1995년 우연한 기회에 陆天明은 위험을 무릅쓰고 반부패를 주제로 한 《苍天在上》을 썼다. 극본은 까다로운 심사를 받은 끝에 방영되었는데²⁷⁾ 방영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시청률이 40%에 이르렀다. 《苍天在上》은 章台 시에 새로 부임한 대리 시장 黄江北이 ‘萬方그룹’의 공금 유용 사건을 파헤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설은 ‘人命案件’, ‘梨树沟小学事件’ ‘刹车管事件’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黄江北과 기타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끝으로 黄江北은 진 부성장을 수장으로 하는 부패세력과의 싸움을 견지함으로써 사건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내놓게 된다.

《苍天在上》이 창작되어 세상에 나오기 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陆天明은 한 동안 집필을 그만두어야 했다. 5년 후 그는 또한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국무성사건(国贸城案件)’²⁸⁾을 이야기의 모티프로 삼고 비밀리에 취재한 자료를 활용하여 《大雪无痕》을 썼다.²⁹⁾ 소설은 ‘东钢股票行贿案’과 ‘副市长周密杀人案’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부시장 周密을 필두로 하는 부패관료의 인간성이 어떻게 훼손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方雨林으로 대표되는 일반 시민과 부패관료와의 투쟁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大雪无痕》 중 부패를 반대하는 방식은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군중의 역량에 의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周梅森은 독특한 경력을 지닌 작가이다. 그는 광산 노동자에서 문학 편집일을 한 적이 있으며, 정부기관의 관료로 있다가 그만 두고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개발과 증권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27) 〈陆天明：《苍天在上》是写反腐作品的开始〉，记者李杰斌，《桂林日报》2007.08.06.

28) 국무성은 하얼빈 시의 중심에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서 1992년에 개장하였다. 원래 시정부 자산이어서 영업이익의 일정액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했다. 국무성의 사장 张庭浦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없다고 보고한 뒤 2000만 위엔에 이르는 거금을 착복하였다. 〈哈尔滨国贸城大案纪实（90年代中国惩治腐败大案要案纪实之2）〉，《预防信息库 网上反腐倡廉展 网络贪官档案馆》<http://hongjian.fyfz.cn/art/148693.htm>

29) 李杰斌，〈陆天明：《苍天在上》是写反腐作品的开始〉，《桂林日报》2007.08.06.

하였다. 2005년 周梅森은 <전국 중소 주식투자자에게 보내는 편지致全国中小流通股股东的公开信>를 발표하고, 상장 주식 권한 개혁 방안에 반대함으로써 CCTV가 선정한 중국경제 2005년도 사회 공익인물로 거명되었다. 소설에 근거하여 개편한 드라마 《绝对权力》《国家公诉》, 《忠诚》 등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중국정치소설 제 일인자’라는 칭호도 얻었다.³⁰⁾

周梅森은 다산 작가로서 그의 소설 창작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전기소설은 역사소설에 속하고 후기소설은 현실주의 소설에 속한다고 평가한다.³¹⁾ 이 중에서 반부패 소설은 후기 현실주의 계열에 속한다. 대표작으로는 《中国制造》《绝对权力》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해외에 많이 알려졌는데, 2001년 《中国制造》를 개편한 드라마 《忠诚》은 일본에서 방영되었고, 2002년 《绝对权力》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中国制造》는 1998년에 출판되었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平阳市 위원회 서기 姜超林은 재임기간에 경제건설에 힘써 平阳市를 성제일의 경제 도시로 만들었다. 퇴임 무렵 그는 성위원회에 그의 오래된 부하 文春明을 추천하나 성위원회에서는 高长河라는 인물을 시 위원회 서기로 임명한다. 高长河는 平阳市에 부임하자 平陽 강철압연공장과 烈山 현의 지도부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姜超林과 그의 부하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绝对权力》은 2002년에 발표되었다. 시 위원회 서기 齐全盛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镜州 시를 개혁개방 역사의 대표적 도시로 만들었다. 그 자신은 결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나 사람을 잘못 채용하여 镜州에서 전례가 없었던 심각한 부패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가 발탁한 두 명의 시위원회 상무위원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이 성 기율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를 담당한 이는 7년 전 齐全盛의 절대 권력에 의해 쫓겨났던 시장으로 지금은 성 기율 위원회 상무위원 부서기

30) 古烛君, 〈周梅森: 恺撒的归恺撒, 人民的归人民〉, 《科学时报》, 2009.02.26.

31) 예를 들어 《喧嚣的旷野》, 《沉沦的土地》, 《崛起的群山》, 《庄严的毁灭》, 《黑色的太阳》 등과 같은 작품이 있다.

를 맡고 있는 起重天이었다. 그러나 起重天은 보복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고 鏡州 문제를 조사하는 기간 오히려 齊全盛이 주관하는 鏡州의 전면적 작업을 도와줌으로써 결국 진정한 부패세력을 색출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중심형 작품들에서 공통된 서사모식을 찾을 수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부패현상이 폭로 된다. <抉擇>의 경우 중앙방직공장의 도산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중앙방직공작을 도산하게 하고 이익을 챙긴 거대한 부패세력이 폭로된다. <蒼天在上>의 경우 章台시 시장의 수뢰혐의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성장이 개입한 부패현상이 폭로된다. <大雪无痕>의 경우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부패세력이 드러난다. <绝对权力>의 경우 국영기업의 수뢰사건을 계기로 시장과 부시장이 개입되어 있는 부패세력이 드러난다.

둘째, 부패와 반부패의 대립은 선악의 대립으로 단순화되어 있고 부패세력이 반부패 세력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 <抉擇>의 경우 반부패 주인공인 李高成이 시장인 것에 비해 부패세력은 성 위원회 부서기인 严陣이다. <蒼天在上>의 주인공 黃江北의 상대는 田부성장이며, <中国制造>의 주인공 高長河의 상대는 성 위원회의 부서기인 馬万里이다.

셋째, 부패와 반부패 대립과정에서 반부패 세력은 직장, 가정, 건강, 생명 등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抉擇>의 경우 주인공 李高成은 부인을 법정에 서게 하고, <蒼天在上>의 경우 주인공 黃江北은 직장을 잃고 부인이 병사하게 된다. <绝对权力>의 齊全盛의 딸은 전신이 마비되며 본인은 직장을 잃는다.

넷째,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결과, 부패세력보다 상위세력에 있는 고위 간부의 도움으로 결국 반부패를 대표하는 선의 세력이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획일적 결과는 주선울 작품들이 지니는 한계이지만 공권력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법률이 아직 완비되지 못한 중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결말 또한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인물중심형 소설 작품과 작가

인물 중심형 소설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반부패 투쟁과정 즉, 모순의 해결과정보다 부패현상, 모순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王跃文, 阎真이 그러한 창작경향을 띠고 있다.

王跃文은 《国画》 한 편으로 하루아침에 ‘中國當代官場小說第一人’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대표적인 반부패소설작가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설 대부분이 관료생활을 묘사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国画》 이외에 《西州月》, 《蒼黃》 등도 모두 관직의 부침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두 번째로는 그 자신 또한 관료 출신의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현정부 비서를 맡았었고, 이후 시정부와 성정부에서 근무했었다. 그의 이러한 이력은 관직사회의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이후 소설 창작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하였다.³²⁾

《国画》는 王跃文의 대표작으로서 1999년 5월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国画》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평론계와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쇄를 찍었고 매번 매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정부의 제재를 염려한 출판사가 10년간 《国画》를 찍지 않자 시장에는 해적판이 나돌았다. 일찍이 출판업계는 해적판이 이백만 권 이상 팔렸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2010년 《国画》는 다시 발간되었다.³³⁾

《国画》는 市政府의 부처장 朱怀镜을 중심으로 시장 皮德求, 시장비서 方明远, 柳秘书长 등 관료들의 생태를 세밀화를 그리는 기법으로 리얼하게 묘사하여 관료사회의 추악한 면모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료사회와 재계, 언론계, 종교계 등의 인물들이 결탁하여 권력을 농단하고 세력을 형성하며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통하여 관료사회에서 통용되는 내밀한 법칙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진 인물인 기자 曾俚는 사회의 변방 지대에서조차 생존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된다. 《国画》는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인간의

32) 邵筐, <反腐风潮催生热门“官场小说”>, 《检察日报》, 2010.02.26.

33) 王跃文, <若入世必读《国画》, 我愿咒它速朽>, 《南方都市报》, 2010.04.11.

적나라한 욕망과 욕망 팽창의 사회적 원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권력과 결탁한 욕망이 가져온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현상과 인간성 파괴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阎真은 《沧浪之水》 한 권으로 대표적인 반부패소설작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현재 阎真이 출판한 작품은 《曾在天涯》(1995), 《沧浪之水》(2001), 《因为女人》(2007) 이 세편에 불과하나 소설의 주제는 완전히 다르다. 官場의 부패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沧浪之水》 한 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1년 《沧浪之水》가 《当代》에 발표된 후, 문예계에 강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当代》 2001년도 문학대상, 《小说选刊》상, 湖南省 제2차 毛泽东 문학상 등을 차례로 받았다. 阎真是 또한 2002년도 ‘중화문학인물’ 중에서 가장 발전적인 작가로 뽑혔다. 인민문학출판사 출판 후 재판 발행이 20여 차례 30만권에 달했다.³⁴⁾

《沧浪之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대학원생 池大为는 졸업 후 성 위생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官場의 어두운 면과 무자비함을 마주하면서 처음에는 함께 타락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결국 한직으로 쫓겨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池大为는 지식인의 안빈낙도하는 삶을 추구하나 결혼 후 아내와 아이 때문에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된다. 곡학아세의 자세로 나오자 池大为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펼쳐져 결국 성 위생청장에 이르게 된다.

《沧浪之水》는 비록 官場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지만 《国画》와 다르다. 소설은 권력과 금전이 지식인의 인격과 가치관을 훼손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지식인이 점차 지조와 신념 및 가치관을 버리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심리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점이 《沧浪之水》가 독자와 평론가의 호평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³⁵⁾

인물중심형 반부패소설은 국가가 선양하고 있는 반부패 투쟁과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부패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부패사건과 관련된 사

34) 赵佃强, 〈阎真《沧浪之水》解读〉, 《长城》 2009年12期, 22쪽.

35) 余三定, 〈当代知识分子人格失落的悲剧——评《沧浪之水》〉, 《云梦学刊》 第24卷第1期, 2003年1月, 21~23쪽.

회현상을 깊이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물중심형 소설은 사건 중심형 소설 보다 문학 예술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반부패의 의미와 심각성을 잘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나오면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부패소설의 창작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자칫 정부의 선전구호에만 머무를 수도 있었을 반부패운동을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문인과 지식인들이 반부패소설 창작의 대열에 합류하였고, 또 일부 작품들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중국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실상과 그것이 지니는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문학의 사회적 기능만 뛰어날 뿐 문학성이 떨어졌다면 반부패소설은 어용문학 혹은 관방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를 받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흥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부패소설은 중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현실주의 문학이 지닌 생명력을 발휘하여 문학의 예술성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소설은 작가의 투철한 현실참여 정신과 예술적 실천을 통해, 반부패라는 제재의 한계와 당대라는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었다. 이는 근현대사 100년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문학사 회학의 측면에서 바라 볼 때 그 의의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반부패소설은 10년에 이르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단절과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대중문학의 범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現當代文學이 100년 간 지켜온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은 현실주의 전통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사인방세력에 의해 제창된 ‘삼돌출론’과 같은 창작방법론은 문학을 정치의 선전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리고 문인과 지식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탄압은 현실주의 문학의 존립마저 위협하였다. 수많은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적 良志마저 꺾어버리고 애써 현실정치를 외면해야 했다. 이로써 현실주의 문학의 전통은 10여년에 걸쳐 단절되었으며, 이러한 단절은 1976년 문혁이 종결되고 개혁개방이 본격화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는 이른바 傷痕文學, 反思文學, 尋根文學, 改革文學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주의 전통은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 특히 상업문화의 발달로 사회 문화 환경이 급속하게 변모하면서 현실주의 전통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학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장르에게 문화의 주류자리를 내놓게 된다. 게다가 달라진 문화 환경 속에서 전통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던 ‘농촌서사’는 ‘도시서사’로 바뀌었고, 도시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통속작품이 쏟아져 나와 현실주의 계열의 작품을 대체하였다.

이처럼 현실주의 계열의 문학창작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반부패소설이 등장하였다. 반부패소설의 등장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작의 제재 면에서나 출판시장의 개척 면에서 현실주의 계열의 작가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반부패소설은 창작이 진행될수록 부패현상의 핵심을 폭로하고 더욱 더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점차 부패의 사회적 원인을 탐구하여 사회모순의 심층적 측면을 반영해내었다. 이는 1918년 <광인일기> 이래 약 100년간 소설의 주조였던 현실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반부패 소설은 문학가로 대표되는 중국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반부패 소설 작가는 5·4시기 지식인이 지녔던 강력한 사회참여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난 세기 약 50여 년 동안 약화되었던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금 되살리고 있다.

1919년 5.4신문화 운동 이래 1940대 초반까지 사회적 담론은 지식인 계층이 주도하였다. 중국 지식인의 너리에 뿌리박은 “學而優則仕”, “文以載道”라는 유가전통은 급변기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었다. 魯迅, 茅盾, 郭沫若 등과 같이 당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진보적 작가 뿐 아니라 老舍, 巴金, 沈从文 등과 같은 중도 성향의 작가들 또한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작가의 사회적 임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사회적 담론의 주도권은 국가 권력이 장악하였다. 국가권력이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면서 지식인의 사회 비판적 역할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적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적 담론은 다양해졌다. 국가 주도의 거대담론 뿐만 아니라 시민대중에 의해 제기되는 개인적 담론 또한 가세하였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담론의 다양화는 1990년대 '인문정신 논쟁'에서 볼 수 있듯, 사회문화적 담론의 형성에 있어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 이처럼 위축되었을 때 반부패소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리고 반부패소설의 창작을 통해 지식인은 자신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반부패소설이 주류문화화하자 지식인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반부패소설의 흥행으로 지식인은 일반대중의 호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국가권력의 지원과 일반대중의 환영 속에서 지식인은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고 조금씩 지식인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세기 50년간 약화되었던 지식인의 문화적 주도권이 바로 반부패 소설의 창작과 함께 회복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고찰을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반부패소설의 성행은 국가정책에 호응하려는 일부 문인들에 의한 일시적 문화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할 당대 중국의 중요 문화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부패소설은 54신문화 운동 이래 100여 년간 지속된 리얼리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 성립과 좌경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중국전통 지식인의 사회참여 정신과 사회비판적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부패소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사회의 깊숙한 내면을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중국 사회의 진전양상 또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I. 단행본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7.

쑨리핑, 《단절》, 부산: 산지니, 2007.

우쓰, 《잠재규칙 : 5천 년 중국, 숨겨진 부패의 역사》, 서울: 황매, 2005.

- 姬田光義·阿部治平,《中國近現代史》,서울:일월서각,1984.
- 黄宝玖,《新中国反腐倡廉建设历程》,北京:世界知识出版社,2011.
- 陆天明,《大雪无痕》,长沙:湖南文艺出版社,2008.
- 陆天明,《苍天在上》,北京:作家出版社,2009.
- 王跃文,《国画》,北京:华文出版社,2010.
- 阎真,《沧浪之水》,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0.
- 张平,《抉择》,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9.
- 张平,《天网》,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9.
- 周梅森,《绝对权力》,长春:吉林出版集团有限责任公司,2009.
- 周梅森,《中国制造》,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7.

II. 논문

- 왕중화,《현대중국의 부패와 반부패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년).
- 董斌,《反腐小说的文化意蕴与价值-文化视野下法学与文学的交叉研究》(兰州大学博士学位论文, 2007).
- 赵佃强,〈阎真《沧浪之水》解读〉,《长城》2009年12期.
- 余三定,〈当代知识分子人格失落的悲剧——评《沧浪之水》〉,《云梦学刊》第24卷第1期,2003年1月.
- 邵筐,〈反腐风潮催生热门“官场小说”〉,《检察日报》,2010年02月26日.
- 艾自由,〈集体腐败和艰难抉择——评张平的茅盾文学奖获奖作品《抉择》〉,《凤凰网读书》,2010年09月06日.
- 卜昌伟,〈张平:副省长的作家生涯〉,《京华时报》,2008年3月15日.
- 〈陆天明:《苍天在上》是写反腐作品的开始〉,记者李杰斌,《桂林日报》2007年8月6日.
- 古烛君,〈周梅森:恺撒的归恺撒,人民的归人民〉,《科学时报》,2009年2月26日.
- 王跃文,〈若入世必读《国画》,我愿咒它速朽〉,《南方都市报》,2010年4月11日.

III. 인터넷 검색 자료

- 〈中 공산당, 兩會 앞두고 부정부패 척결 강조〉, 《KBS 뉴스》, 2012.02.20. <http://news.kbs.co.kr>
- 〈실각 보시라이 비리 조사설… 사법 처리냐 조용한 은퇴냐〉, 《경향신문》, 2012.03.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62210105&code=970204
- 〈사기로 사형선고 중국 여성 갑부, 일단 집행 모면〉, 《경향신문》, 2012.02.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52135585&code=100100
- 〈胡锦涛：反腐败关系人心向背和党的生死存亡〉, 《中国新闻网》, 2011年07月01日.
<http://www.chinanews.com/gn/2011/07-01/3150372.shtml>
- 〈张平：别把我当成“反腐作家”〉, 《北京青年报》 2004年3月8日.
《腾讯网》 <http://news.qq.com>
- 〈河南《纪检与监察》杂志评出中国十大经典反腐小说〉, 《秦风》 <http://www.qinfeng.gov.cn/Html/2008-11-7/090111.Html>
- 〈对话陆天明：我写反腐小说〉, 《人文网》
<http://www.people.com.cn/GB/wenju/66/134/20020717/777892.htm>
- 〈哈尔滨国贸城大案纪实（90年代中国惩治腐败大案要案纪实之2）〉,
《预防信息库网上反腐倡廉展网络贪官档案馆》
<http://hongjian.fyfz.cn/art/148693.htm>

<中文提要>

如何治理腐败是关系到中国社会向后发展的重要课题,因此起始于九十年代中期至今方兴未艾的反腐小说创作热潮是值得我们加以关注的文化现象。

反腐小说从多个角度生动地展示了当代中国的社会现实,研究反腐小说不仅能够获取官方新闻和学术论文中所没有的信息,还能预测中国社会的发

展变化。然而韩国学界对于中国反腐小说创作潮流这一重要文化现象的介绍或研究现在尚处于空白状态。

作为研究中国反腐小说的敲门砖，本论文主要从以下几个方面对反腐小说进行初步的考察。

第一，考察中国反腐小说的兴盛原因。通过分析反腐小说形成潮流的原因，进一步凸显了反腐败小说的文学社会学价值。首先，本论文对中国社会的腐败现象做了宏观性观照，从中发现中国政府之所以对腐败问题给予高度重视，是因为中国当代的腐败现象呈现出类似于近代封建王朝末期的特征。即当代的腐败是历史的反复，如果不能彻底地治理腐败，中国共产党政权同样会走向灭亡。由于中国政府对腐败问题的高度重视，反腐小说的创作受到主流意识形态的关注和支持并形成创作热潮。

第二，通过主要作家的代表作品解析反腐小说的主题内容和创作意义。分析结果表明反腐败小说的创作并非迎合主流意识形态的短期文化现象。反腐败小说的创作不仅是对“五四”批判现实主义精神的继承，也是当代知识分子试图恢复长期被主流意识排斥的参与社会和批判社会等社会功能的具体表现。

關鍵詞： 腐敗 反腐小说 主流意识 知识分子 批判现实主义

투 고 일 : 2012.2.26

심 사 일 : 2012.3.10~4.15

게재확정일 : 2012.4.20